

키르기스스탄에 ‘K-바이오센터’ 문 열다

농진청·KOICA, 축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한국형 축산기술 중앙아시아 확산 기대

농촌진흥청은 22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KOPIA 키르기스스탄 바이오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은 농촌진흥청 해외농업 기술개발사업(KOPIA)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키르기스스탄 축산연구소와 협력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바키토 토로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농업부 장관, 김광재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 임소연 KOICA 키르기스스탄 사무소장 등 양국 관계자와 현지 축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 한-키르기스스탄 간 농업기술 협력 강화의 뜻을 모았다.

이번에 문을 연 바이오센터는 키르기스스탄 축산연구소 내에 조성된 전문 교육시설로, 연간 50명의 인공수정사(AI Technician)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아곳에서는 △젖소 인공수정 △동결 정액 제작 △임신 진단 등 축산 생명공학 분야 핵심 기술 교육이 이뤄지며, 향후 신설될 축산 유전체 연구소와 연계해 품종개량 연구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고품질 완전혼합사료(TMR) 생산 기

술 보급 현장형 기술 교육 확대, 정부 간 정책 연계 강화 등 키르기스스탄 축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 모델을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로 확산시켜, 한국형(K)-축산 기술의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KOPIA 키르기스스탄센터는 2021년 설립 이후 현지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한국산 정액 1만 개를 도입하고, 180명 이상의 인공수정사를 양성했으며, 이를 통해 재래종 대비 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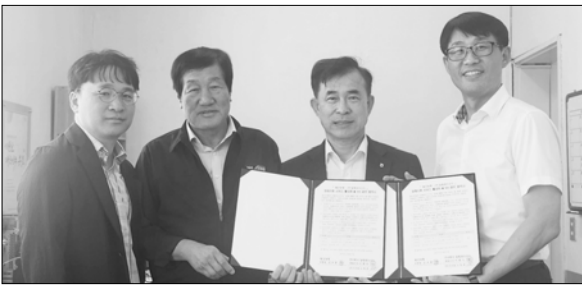
소 유량을 3배 이상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역별 종합 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현지 농업인과 전문가 대상의 실용 교육체계도 확립했다.

농촌진흥청 유은하 국외농업기술과장은 “이번 바이오센터는 단순한 교육장이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축산 정책과 연계된 기술 혁신 거점으로 의미가 크다”며,

“한국형 선진 축산기술이 현장에 확산돼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가 전북지역 92개 농·축품목농협과 ‘농협상조 장례지원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모두 체결,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

전북권역 장례서비스 네트워크 완성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 전북 92개 농·축협과 MOU 체결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가 전북지역 92개 농·축품목농협과 ‘농협상조 장례지원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모두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권역 장례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합원과 지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장례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파트너스의 체계적 서비스 시스템과 현장 지원 역량이 결합된 점이 특징이다.

협약을 통해 농협파트너스는 △조합원 전용 맞춤형 장례지원 △전문 인력 파견 △투명한 비용 안내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윈스

톱 장례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 복지 향상과 상조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고영훈 전북지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지역 모든 농·축협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조합원과 지역민이 보다 품격 있고 믿을 수 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협파트너스는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상조문화를 정착시키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파트너스는 전국 농협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한전 전북본부, 전주시 송천동 동경에코하우징 전기공급 정지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지난 21일 오전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내 동경에코하우징 집합상가에 대해 전기요금 3개월 체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에는 아파트 에코지점을 비롯한 20여 개 상가가 입점해 있었으나, 단전이 시행된 당일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점포가 이미 철수한 상태였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체납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단행된 조치다.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가 입회했으며, 남아 있는 임차인들의 동의를 받은 뒤 절차에 따라 전기공급이 차단됐다.

앞서 동경에코하우징 측은 재정 악화로 인해 전기요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임을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통보, 전기공급 정지에 대비해 점포 철수 등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전은 단전 시행 전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전기요금 미납 시 전기공급이 정지될 예정임을 안내하고, 설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종 납부 기한인 10월 20일까지 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이튿날인 21일 오전 9시 40분경 전기공급 정지가 이뤄졌다.

한전 관계자는 “미납된 전기요금이 납부되는 즉시,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전기를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 중소기업, AI로 ‘실전 경쟁력 업’

전북자치도·경진원, AI 기반 사업계획서 실전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AI를 활용한 실전형 기업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

경진원은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주 이비스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사업계획서 실전 워크숍’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 중소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작성 능력을 높이고, 정부 지원사업 및 투자유치 단계에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특히 이론 강의보다 실습 비중을 높여,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계획서로 구조화하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지원사업 공고 분석부터 계획서 초안 작성까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지난해 R&D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1:1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 평가 항목별 미흡 사유를 정밀 진단하고 논리·지표·증빙 체계를 강화해 차년도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자금 확보와 사업화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계획이다.

경진원은 워크숍 이후에도 12월 중 성장스타리(돌음·도약) 기업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 기업 간 기술 교류의

거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의 중점 방향을 구체화하는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보여주는 계획서’가 아니라 채택되는 계획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AI를 실전에 투입해 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 성장스타리 육성체계는 도내 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전북도의 차별화된 기업지원정책이다. 기획, 사업화, 시장확대의 전 주기에 걸쳐 경진원의 컨설팅, 자금, 마케팅 인력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관원 중금속분석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체계적 안전관리와 연구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노력 결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소속 중금속분석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평가’에서 신규 인증 연구실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연구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는 정부 인증제도로,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환경 활동 수준 △관계자 안전 의식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80점 이상

을 획득해야 하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전북농관원 중금속분석실은 지역 농산물의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고위험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적 자체 점검, 연구원 대상 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해 왔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연구활동 종사자 모두가 꾸준히 실천해 온 안전관리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연구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국산 ‘메소나’, 베트남 벼 재배 효과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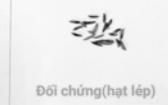
수확량 18.4% 증가… 농진청 기술, 글로벌 농업시장 진출 청신호

국산 바이오 농자재가 해외 농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미생물제 메소나(Mesona)가 베트남 벼 재배 시험에서 수확량과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며, 국산 농업기술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베트남 빈안 지역 농가(1,000㎡)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실증시험에서, 메소나를 처리한 벼의 수확량이 18.4%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충실한 쌀 비율(70.6%)과 1,000립 무게(45.64g) 등 품질 지표도 대조구(각 66.2%, 42.25g)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시험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베트남 실증연구 교육장(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을 통해, 베트남 국가비료시험센터가 주관하고 글로벌이그로(주)가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 벼 생육기 동안 총 4회에 걸쳐 500㎡당 500ml씩 메소나를 처리한 결과, 현지

 Mesona(hạt chác)	 Đôi chúng(hạt chác)
 Mesona(hạt lép)	 Đôi chúng(hạt lép)

농가에서도 ‘벼 생육이 건강하고 수확량이 뚜렷하게 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소나는 농촌진흥청이 2016~2018년 발굴한 유용 미생물 ‘바실러스 메소나에(Bacillus mesnace)’ 기반 기술로, 식물 조직을 강화해 쓰러짐을 방지하고 병해·염해 저항성을 높여 작물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성 생물소재다.

이 기술은 2023년 글로벌이그로(주)에 기술이전돼 상용화되었으며, 공공 연구성과의 민간사업화 성공 사례로 꼽힌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